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

이지훈* · 박순호** · 박성진***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실용무용은 대중문화의 성장과 함께 공연예술의 한 영역을 넘어 전문교육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다. 실용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중심으로 관련 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이후 전문대학교와 정규대학교 및 대학원 과정으로까지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었다(이지훈, 이해준, 2023, p.85). 스트리트 댄스 역시 대학과 예술고등학교 및 학위과정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면서 전문교육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국송이, 박성진, 2020, p.21). 이러한 변화는 실용무용과 스트리트 댄스가 현장 중심의 실기 활동을 넘어 전문적인 교육과 연구의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실용무용을 구성하는 개별 장르 역시 기술 습득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배경과 움직임의 특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팝핑은 스트리트 댄스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르로서 독자적인 역사와 움직임 체계를 형성하며 발전해 왔다. 팝핑은 1970년대 후반부터 팝(pop)과 부갈루(boogaloo)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팝의 테크닉이 세분화되고 틱킹(ticking), 다임스탑(dimestop) 등의 다양한 테크닉이 활용되면서 기술적·형태적으로 다양화되었다(김의영, 2016, p.49). 이 과정에서 일렉트릭 부갈루스(Electric Boogaloos)는 팝핑의 기본기와 스타일 및 테크닉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의 댄서들과 교류하면서 장르의 확산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김의영, 2016, p.50). 국내에서는 초기 TV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팝핑이 소개되었으며(박성진,

* 주저자, 서경대학교 무용예술학부 초빙교수

** 공동저자, 한양대학교 ERICA 무용예술학과 겸임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ERICA 스포츠과학부 실용무용 부교수, winnersap1@hanmail.net

2017, p.70), 이후 아카데미와 워크숍 등의 현장교육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와 대학원 등의 교육과정에서도 다루어지면서 교육적 영역을 확대하였다(박성진, 2017, p.92).

팝핑은 역사적 발전과 함께 신체를 활용하는 방식에서도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팝핑의 기술적 요소에는 아이솔레이션(isolation), 리듬, 힘의 작용원리 및 밸런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는 다른 실용무용 장르에서도 활용되는 움직임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64). 또한 다양한 장르의 움직임과 테크닉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표현방식을 시도하고 개인의 움직임 스타일을 확장하는 경험으로 나타나며(배건희, 김승혜, 2026, p.139), 타 장르에서 습득한 움직임과 테크닉을 활용하는 경험 역시 새로운 표현방식의 시도와 개인의 스타일을 심화하는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배건희, 김승혜, 2026, p.141). 이러한 측면에서 팝핑은 팝핑 전공자만의 기술체계로 한정하기보다, 다양한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그 움직임과 표현방식을 어떠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팝핑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 인식, 가치 인식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실용무용 전공자의 인식을 분석해 왔다. 일반 인식에서는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느낌, 학습에 필요한 시간 및 창의성 개발 등이 다루어졌으며, 가치 인식에서는 팝핑의 필요성과 현대 댄스 발전에 대한 기여 및 이로움 등이 측정되었다. 또한 선호도에서는 팝핑에 대한 관심 정도와 학습 의향, 공연 관람 및 권유·교육 의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다(강건웅, 2021, p.30). 이는 팝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장르 선호에 한정되지 않고, 장르에 대한 가치 판단과 관심 및 학습 의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러한 인식 변인 간의 관계보다는 각 인식의 수준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전공에 따라 팝핑의 일반 인식, 가치 인식 및 선호도의 일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강건웅, 2021, p.62),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느낌, 관심 정도,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의향 등에 따라서도 가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이러한 결과는 팝핑에 대한 인식과 가치 및 관심이 서로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각각의 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특히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관심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며, 이 과정에서 팝핑에 부여하는 가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팝핑에 대한 가치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팝핑이라는 장르와 움직임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그 움직임 및 표현방식에 구체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팝핑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거나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 인식은 팝핑이라는 장르와 움직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를 의미하며, 가치 인식은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 및 장르적 특성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부여하는 구체적인 가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즉, 긍정적 인식이 팝핑이라는 장르와 움직임 특성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초점을 둔다면, 가치 인식은 이러한 특성이 표현적·예술적·기술적·창작적 측면에서 지니는 구체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또한 관심도는 팝핑에 대한 관심과 관련 경험 및 향후 학습·활용에 대한 지향을 포함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팝핑에 대한 관심 정도와 학습 의향, 공연 관람 및 권유·교육 등이 선호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강건웅, 2021, p.30), 이러한 관심과 학습 의향 등에 따라 팝핑의 가치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따라서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관심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뿐만 아니라,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에 부여하는

가치가 두 변인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팝핑에 관한 연구는 역사와 발전과정, 국내 수용 및 교육, 인식 등으로 연구영역을 확대해 왔으나, 스트릿 댄스라는 상위 범주에 비해 개별 장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성진, 2017, p.3). 더욱이 기존 팝핑 인식 연구가 인식의 수준이나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는 팝핑에 대한 인식과 가치 및 관심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넘어 이들 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용무용 전공자가 팝핑을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 인식이 장르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온 팝핑의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 및 관심도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실용무용 전공자가 팝핑에 부여하는 가치와 관심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 긍정적 인식은 팝핑 가치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둘째,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 가치 인식은 팝핑 관심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셋째, 팝핑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실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 중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네이버 폼(NAVER Form)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수업 현장에서 조사에 관한 내용을 안내한 후 해당 수업의 단체 대화방을 통해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였다. 총 252부의 자료를 회수하였으며, 동일 응답자의 중복 제출 여부와 주요 문항의 무응답 및 응답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한 응답을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등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자료 15부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237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조사도구 및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가.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성별의 경우 여성이 205명(86.5%)으로 남성 32명(13.5%)에 비해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이 70명(29.5%), 2학년이 71명(30.0%), 3학년이 21명(8.9%), 4학년이 15명(6.3%), 대학원생이 60명(25.3%)이었다. 전공은 스트릿댄스가 116명(48.9%), 코레오그래피가 91명(38.4%), 현대무용이 17명(7.2%), 기타가 13명(5.5%) 순이었고, 안무 경험은 1-4년 미만이 94명(39.7%), 4-7년 미만이 71명(30.0%), 7년 이상이 46명(19.4%), 1년 미만이 26명(11.0%) 순이었다. 팝핑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9명(79.7%)으로 경험이 없는 48명(20.3%)에 비해 많았고, 팝핑 수업 또는 워크숍 참여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180명(75.9%)으로 경험이 없는 57명(24.1%)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N=237)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32	13.5
	여	205	86.5
학년	1학년	70	29.5
	2학년	71	30.0
	3학년	21	8.9
	4학년	15	6.3
	대학원생	60	25.3
전공	코레오그래피	91	38.4
	스트릿댄스	116	48.9
	현대무용	17	7.2
	기타	13	5.5
안무 경험	1년 미만	26	11.0
	1-4년 미만	94	39.7
	4-7년 미만	71	30.0
	7년 이상	46	19.4
팝핑 경험 여부	있음	189	79.7
	없음	48	20.3
팝핑 수업 또는 워크숍 참여 경험	있음	180	75.9
	없음	57	24.1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치 인식 및 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강건웅(2021)과 남두식·박성진(2021)의 팝핑댄스 인식 관련 설문 문항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팝핑에 대한 일반 인식, 가치 인식 및 선호도를 구분하여 접근하였으며, 일반 인식에서는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느낌, 학습에 필요한 시간 및 창의성 계발 등을, 가치 인식에서는 팝핑의 필요성과 현대 댄스 발전에 대한 기여, 영향 및 이로움 등을 다루었다. 또한 선호도에서는 팝핑에 대한 관심 정도, 학습 의향, 공연 관람 및 권유·교육 의향 등이 주요 항목으로 활용되었다(강건웅, 2021, p.30).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느낌, 관심 정도,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의향 등에 따라 팝핑 가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측정 문항을 연구모형과 연구목적에 맞게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의 세 변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한 측정문항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와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용무용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현직 교수 3인에게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였다. 검토 결과 측정문항의 구성과 내용에서 수정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최종 설문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된 조사도구는 일반적 특성 6문항,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5문항, 팝핑 가치 인식 5문항, 팝핑 관심도 5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각 변인의 측정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변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구성 내용	문항 수	Cronbach's α
일반적 특성	성별, 학년, 전공, 안무 경험, 팝핑 경험, 팝핑 수업·워크숍 참여 경험	6	-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역사적 가치, 신체 세분화 이해, 신체 감각 향상, 신체 인식 훈련, 기초무용으로서의 가치	5	.759
팝핑 가치 인식	표현 영역 확장, 안무 창작 활용, 학문적 연구 필요성, 예술적·기술적 가치, 안무적 사고력 향상	5	.809
팝핑 관심도	관심, 안무 적용 경험, 공연·배틀 관람 경험, 창작 레퍼런스 활용 의향, 학습 권유 의향	5	.749
계		21	-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Cronbach's α 는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 간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지표로, 계수가 높을수록 해당 문항들이 구성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의 문항 간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은 연구대상자가 팝핑이라는 장르와 그 움직임 특성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긍정적 인식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팝핑 일반 인식 관련 문항을 기초로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으며, 팝핑의 역사적 가치, 신체의 세분화에 대한 이해, 코레오그래피 구성에 필요한 신체 감각, 신체 인식 훈련 및 코레오그래피 전공자에게 기초무용으로서 갖는 가치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759로 나타났다.

나. 팝핑 가치 인식

팝핑 가치 인식은 연구대상자가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 및 장르적 특성에 대해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팝핑의 필요성과 현대 댄스 발전에 대한 기여, 영향 및 이로움 등을 가치 인식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강건웅, 2021, p.30),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관심,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의향 등에 따라 가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측정내용을 기초로 표현 영역의 확장,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 가능성, 학문적 연구의 필요성, 예술적·기술적 가치 및 안무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의 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여기서 표현 및 안무와 관련된 문항은 팝핑이 실제 안무 창작 수행이나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에 대해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활용 가치의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809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치 인식은 팝핑 자체와 움직임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긍정적 인식과 달리, 이러한 특성이 지니는 구체적인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조작적으로 구분하였다.

다. 팝핑 관심도

팝핑 관심도는 연구대상자가 팝핑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관련 경험 및 향후 학습·활용에 대한 지향 정도를 의미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팝핑의 선호도와 관련하여 관심 정도, 학습 의향, 공연 관람 및 권유·교육 의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으며(강건웅, 2021, p.30), 팝핑에 대한 관심 정도,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의향 등에 따라 가치 인식에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팝핑에 대한 관심, 안무 작업에서의 적용 경험, 공연 및 배틀 관람 경험, 창작 안무의 레퍼런스로 활용하려는 의향 및 동료나 후배에게 팝핑 학습을 권유하려는 의향에 관한 5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관심도는 단순한 장르적 호감에 한정되지 않고 팝핑에 대한 현재의 관심과 관련 경험 및 향후 학습·활용에 대한 지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팝핑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관심 정도를, '안무 작업 적용 경험'과 '공연·배틀 관람 경험'은 팝핑과 관련된 경험적 측면을, '창작 안무 레퍼런스 활용 의향'과 '팝핑 학습 권유 의향'은 향후 활용 및 학습과 관련된 지향적 측면을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은 .749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5.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측정문항의 응답분포를 파악하고 주요 변인 간의 관계 및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각 측정문항의 응답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 학년, 전공, 안무 경험, 팝핑 경험 여부 및 팝핑 수업 또는 워크숍 참여 경험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를 구성하는 15개 측정문항별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의 측정 문항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의 전반적인 수준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고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넷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각 변인 간 선형적 관계의 방향과 정도를 확인하였다.

다섯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8)의 SPSS PROCESS macro v3.5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PROCESS Model 4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단순매개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을 독립변수(X), 팝핑 가치 인식을 매개변수(M), 팝핑 관심도를 종속변수(Y)로 설정하였다. 팝핑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개로 설정하여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p<.01$, $p<.001$ 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팝핑댄스 인식의 문항별 응답 특성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를 구성하는 15개 문항의 응답 빈도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팝핑댄스 인식의 문항별 응답 특성

구분	측정내용	1점	2점	3점	4점	5점	M	SD
긍정적 인식	역사적 가치	1(.4)	0(.0)	13(5.5)	72(30.4)	151(63.7)	4.57	.64
	신체 세분화 이해	0(.0)	0(.0)	12(5.1)	63(26.6)	162(68.4)	4.63	.58
	코레오그래피 구성에 필요한 신체 감각	2(.8)	2(.8)	26(11.0)	81(34.2)	126(53.2)	4.38	.78
	신체 인식 훈련	2(.8)	19(8.0)	61(25.7)	62(26.2)	93(39.2)	3.95	1.02
	기초무용으로서의 가치	0(.0)	15(6.3)	31(13.1)	94(39.7)	97(40.9)	4.15	.88
가치 인식	표현 영역 확장	0(.0)	7(3.0)	33(13.9)	101(42.6)	96(40.5)	4.21	.79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	0(.0)	2(.8)	24(10.1)	95(40.1)	116(48.9)	4.37	.70
	학문적 연구 필요성	0(.0)	10(4.2)	59(24.9)	86(36.3)	82(34.6)	4.01	.88
	예술적·기술적 가치	0(.0)	0(.0)	25(10.5)	80(33.8)	132(55.7)	4.45	.68
	안무적 사고	0(.0)	13(5.5)	39(16.5)	87(36.7)	98(41.4)	4.14	.88
관심도	팝핑에 대한 관심	3(1.3)	16(6.8)	52(21.9)	104(43.9)	62(26.2)	3.87	.92
	안무 작업 적용 경험	31(13.1)	52(21.9)	41(17.3)	62(26.2)	51(21.5)	3.21	1.35
	공연·배틀 관람 경험	28(11.8)	32(13.5)	15(6.3)	53(22.4)	109(46.0)	3.77	1.44
	창작 안무 레퍼런스 활용 의향	8(3.4)	29(12.2)	88(37.1)	76(32.1)	36(15.2)	3.43	1.00
	팝핑 학습 권유 의향	1(.4)	8(3.4)	52(21.9)	96(40.5)	80(33.8)	4.04	.86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의 문항별 응답을 살펴본 결과, ‘신체 세분화 이해’가 평균 4.63점($SD=.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점과 5점에 응답한 비율은 95.0%였다. 다음으로 ‘역사적 가치’가 평균 4.57점($SD=.64$)으로 나타났으며,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94.1%였다. ‘코레오그래피 구성에 필요한 신체 감각’은 평균 4.38점($SD=.78$), ‘기초무용으로서의 가치’는 평균 4.15점($SD=.88$), ‘신체 인식 훈련’은 평균 3.95점($SD=1.02$)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팝핑의 역사적 가치와 신체를 세분화하여 이해하는 측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팝핑 가치 인식에서는 ‘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평균 4.45점($SD=.68$)으로 가장 높았으며,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89.5%였다.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은 평균 4.37점($SD=.70$)으로 나타났으며,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89.0%였다. 이어 ‘표현 영역 확장’이 평균 4.21점($SD=.79$), ‘안무적 사고’가 평균 4.14점($SD=.88$), ‘학문적 연구 필요성’이 평균 4.01점($SD=.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은 팝핑의 예술적·기술적 가치와 움직임 원리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팝핑 관심도에서는 ‘팝핑 학습 권유 의향’이 평균 4.04점($SD=.86$)으로 가장 높았으며,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74.3%였다. 다음으로 ‘팝핑에 대한 관심’이 평균 3.87점($SD=.92$), ‘공연·배틀 관람 경험’이 평균 3.77점($SD=1.44$), ‘창작 안무 레퍼런스 활용 의향’이 평균 3.43점($SD=1.00$), ‘안무 작업 적용 경험’이 평

균 3.21점($SD=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무 작업 적용 경험과 창작 안무 레퍼런스 활용 의향의 4점과 5점 응답 비율은 각각 47.7%, 47.3%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의 전반적인 수준과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23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4.34	0.57	2.80	5.00	-0.59	-0.42
팝핑 가치 인식	4.24	0.60	2.40	5.00	-0.46	-0.38
팝핑 관심도	3.66	0.81	1.00	5.00	-0.32	-0.11

분석 결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의 평균은 4.34점($SD=.57$)으로 나타났으며, 팝핑 가치 인식의 평균은 4.24점($SD=.60$), 팝핑 관심도의 평균은 3.66점($SD=.81$)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가운데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팝핑 가치 인식, 팝핑 관심도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변인의 분포 특성을 확인한 결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의 왜도는 -.59, 첨도는 -.42로 나타났으며, 팝핑 가치 인식의 왜도는 -.46, 첨도는 -.38, 팝핑 관심도의 왜도는 -.32, 첨도는 -.11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요 변인의 왜도와 첨도가 모두 0에 비교적 가까운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

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및 팝핑 관심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구분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팝핑 가치 인식	팝핑 관심도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1		
팝핑 가치 인식	.756***	1	
팝핑 관심도	.431***	.457***	1

*** $p<.001$

분석 결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은 팝핑 가치 인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756$, $p<.001$), 팝핑 관심도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431$, $p<.001$). 또한 팝핑 가치 인식과 팝핑 관심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57$, $p<.001$). 따라서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치 인식 및 관심도는 서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PROCESS macro v3.5의 Model 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

변인			B	SE	β	t	R^2	F	95% 신뢰구간	
독립		종속							LLCI	ULCI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	팝핑 관심도	.610	.083	.431***	7.317	.186	53.545***	.446	.774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	팝핑 가치 인식	.792	.045	.756***	17.719	.572	313.966***	.703	.880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	→	팝핑 관심도	.281	.124	.198*	2.254	.226	34.179***	.035	.526
팝핑 가치 인식			.416	.119	.308***	3.500			.182	.650

* $p<.05$, *** $p<.001$

각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먼저 독립변인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종속변인인 팝핑 관심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B=.610$, $\beta=.431$, $p<.001$). 이는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팝핑 관심도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매개변인인 팝핑 가치 인식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B=.792$, $\beta=.756$, $p<.001$). 이는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을수록 팝핑의 가치에 대한 인식 역시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매개변인인 팝핑 가치 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B=.281$, $\beta=.198$, $p<.05$)과 팝핑 가치 인식($B=.416$, $\beta=.308$, $p<.001$)은 모두 팝핑 관심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가치 인식은 팝핑 관심도의 약 2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226$).

다음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을 5,000회 재추출하여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 결과,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는 $B=.329$ ($\beta=.233$)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은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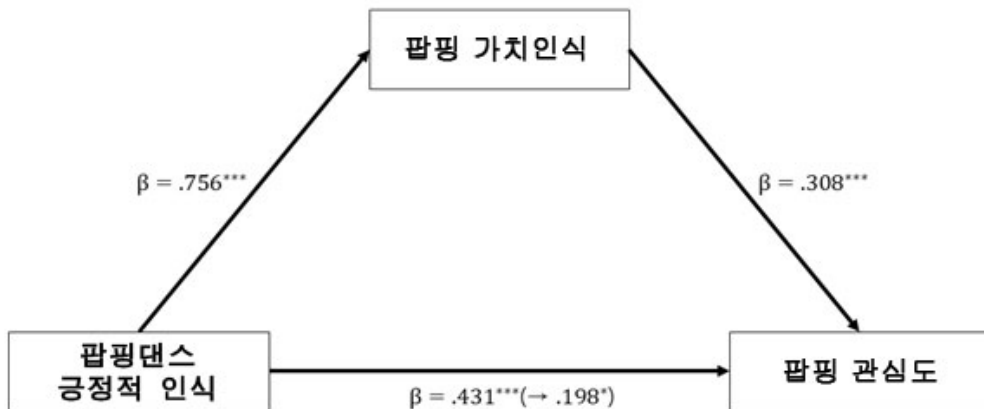
~.529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 간의 총효과는 $B=.610(\beta=.431, p<.001)$ 이었으며, 팝핑 가치 인식을 포함한 후의 직접효과는 $B=.281(\beta=.198, p<.05)$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의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을 통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표 7〉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간접효과 검증

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610	.083	.431	.446	.774
직접효과	.281	.124	.198	.035	.526
간접효과	.329	.102	.233	.134	.529

LLCI : 95% 신뢰구간 내 하한값, ULCI : 95% 신뢰구간 내 상한값



〈그림 1〉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관심도 관계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자의 팝핑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전공자들은 팝핑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 인식에서는 ‘신체 세분화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치 인식에서는 ‘예술적·기술적 가치’와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팝핑의 기술적 요소에는 아이솔레이션(isolation), 리듬, 힘의 작용원리 및 밸런스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소는 다른 실용무용 장르에서도 활용되는 움직임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64). 또한 팝핑은 팝(pop), 부갈루(boogaloo), 톱킹(ticking), 다임스탑(dimestop) 등 다양한 스타일과 테크닉으로 발전해 왔다(김의영, 2016, p.49).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팝핑의 신체적·기술적 특성과 그 활용 가능성을 비교적 높은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가치 인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beta=.756$, $p<.001$). 기존 연구에서도 팝핑에 대한 평소 인식과 느낌에 따라 가치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이러한 결과는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팝핑의 역사와 움직임 및 장르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팝핑의 표현적·예술적·기술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두 변인 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756$)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을 완전히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전제하여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팝핑 가치 인식과 팝핑 관심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며($\beta=.308$, $p<.001$), 팝핑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에서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팝핑에 대한 관심 정도,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등이 선호도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졌으며(강건웅, 2021, p.30), 팝핑에 대한 관심과 학습 의향 및 공연 관람 의향 등에 따라 가치 인식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바 있다(남두식, 박성진, 2021, p.71). 이러한 선행연구가 팝핑의 인식과 가치 및 관심 간의 관련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본 연구는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에서 가치 인식을 통한 통계적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관심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 및 장르적 특성에 부여하는 가치 역시 관심도와 통계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항별 분석에서 팝핑의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에 대한 가치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관심도의 ‘안무 작업 적용 경험’과 ‘창작 안무 레퍼런스 활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관심도가 현재의 관심뿐만 아니라 관련 경험과 향후 활용에 대한 지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관심의 각 측면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팝핑의 움직임 원리가 안무 창작에 활용될 수 있다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이를 실제 창작 활동에서 활용하는 것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팝핑이 실제 안무 창작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확대하기보다는, 팝핑의 움직임과 표현방식에 대해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인식하는 활용 가치의 범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 및 관심도가 서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며, 특히 팝핑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에서 가치 인식을 통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팝핑의 일반 인식, 가치 인식 및 선호도의 수준이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것에서 나아가, 이들 변인의 관계를 하나의 연구모형 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팝핑의 안무 창작 활용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것과 실제 창작 활동에서의 활용은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안무 창작과 관련된 결과를 실제 창작 능력이나 수행의 효과가 아닌 인식된 활용 가치의 측면에서 해석해야 함을 보여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팝

팝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팝핑 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총 237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전공자들은 팝핑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을 보였다. 특히 긍정적 인식에서는 신체 세분화 이해와 역사적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치 인식에서는 예술적·기술적 가치와 움직임 원리의 안무 창작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팝핑의 움직임 및 기술적 특성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해 비교적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팝핑댄스 긍정적 인식과 팝핑 가치 인식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팝핑의 표현적·예술적·기술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 역시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팝핑 가치 인식과 팝핑 관심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팝핑 긍정적 인식과 관심도의 관계에서 가치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관심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뿐만 아니라 팝핑에 부여하는 가치와도 연결되어 관심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팝핑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장르에 대한 긍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팝핑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팝핑의 움직임 원리를 안무 창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가치 인식은 높게 나타난 반면, 실제 안무 작업 적용 경험과 창작 안무의 레퍼런스 활용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팝핑이 실제 안무 창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기보다는, 실용무용 전공자들이 팝핑의 움직임 원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활용 가치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안무 창작 능력이나 창작과정을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며, 팝핑의 창작적 활용 가능성과 실제 창작 수행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실용무용 전공자를 편의표집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 중 팝핑 경험자와 팝핑 수업 및 워크숍 참여 경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은 팝핑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전체 실용무용 전공자에게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과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팝핑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균형 있게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비교·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문조사를 통해 팝핑의 긍정적 인식, 가치 인식 및 관심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므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나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후의 변화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팝핑 긍정적 인식과 팝핑 가치 인식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r=.756$)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측정문항을 구성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토하였으나, 두 구성개념의 판별타당성을 별도의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을 완전히 독립된 구성개념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나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긍정적 인식과 가치 인식의 구성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안무 창작은 팝핑 가치 인식과 관심도를 구성하는 일부 문항을 통해 인식 및 경험 수준에서 다루어졌으며, 실제 안무 수행이나 창작 능력의 변화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팝핑의 움직임 원리와 기술적 특성이 실제 안무 창작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안무 수행이나 창작 결과물을 대상으로 그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2nd ed.). Guilford Press.
- 강건웅(2021). **팝핑 댄스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연구: Z세대 실용무용 전공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송이, 박성진(2020). 스트릿 댄스 전공 대학생의 직업선택 유형별 희망근로형태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78(2), 21-43.
- 김의영(2016). **미국 팝핀댄스의 발전과정: 일렉트릭 부갈루스 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종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23). 학점은행제 무용학 개설과목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인문사회21**, 14(2), 2149-2163.
- 남두식, 박성진(2021). 실용무용 전공 대학생들의 팝핀댄스 인식에 따른 수업인식도 조사. **무용예술학연구**, 84(4), 63-79.
- 박영하(2017). 21세기 실용무용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5(1), 143-160.
- 배건희, 김승혜(2026). 실용무용 코레오그래피 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 요인 및 학습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7(1), 131-146.
- 박성진(2017). **댄스의 한국 유입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수용 양상 고찰: 문화 접변 이론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민정(2026). **실용무용 전공별 안무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탐색**.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화(2021). **코레오그래피(Choreography) 전공의 개념 정립을 통한 뉴 패러다임**. 한양대학교 융합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우(2018). **스트릿 댄스의 분절 움직임 적용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훈, 이해준(2023). 학점은행제 실용무용 교육에 대한 교강사의 중요도와 실행정도 IPA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91(2), 85-102.

논문투고일 2026. 08. 14.

심사일 2026. 08. 19.

심사완료일 2026. 09. 2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Popping Dance and Interest among Practical Dance Majors: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Value

Lee, Ji-Hoon* · Park, Soon-Ho · Park Sung-Jin*****

Visiting Professor, Division of Dance Art, Seokyeong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Dept. of Dance Art, Hany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ractical Dance, Hanyang University ERIC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erceptions of popping dance and interest among practical dance majors and to investigate the indirect effect of perceived value in this relationship. Participants were 237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dance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positive perception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valu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e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f positive perceptions on interest through perceived value was identified. Participants strongly recognized the value of applying popping movement principles to choreographic creation, whereas actual application experience and intention to use popping as a choreographic reference were relatively lower. Therefore, these findings should be interpreted as evidence of perceived applicability rather than actually improvements in choreographic ability or performance.

Keywords: Popping Dance(팝핑댄스), Practical Dance(실용무용), Positive Perception(긍정적 인식), Perceived Value(가치 인식), Interest(관심도)